

24년 10월 목회일정

6일(주일)	정기제직회
13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20일(주일)	연합야외예배(김해개혁장로교회)
27일(주일)	종교개혁기념일 특강(양주동 목사)
10.20~11.16	공식심방(재정심방포함)
8일(화)	부산중부노회 장로회연합회(동래교회당)
15일(화)	부산중부노회 정기노회(거제교회당)
29일(화)	고재수교수 기념신학강좌(고려신학대학원)

주간소식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후원목적(개혁정론 파서교회)
3. 신앙고백반교육 / 입교반- 김성재 이은수학생
4. 3/4 분기특별헌금 / 합 2,430,000원
5. 정기제직회 / 오늘 모든 순서 후에 있습니다.
6. 성찬조별기도회 / 다음 주일 오후예배 후에 있습니다.
7. 성경강좌 / 고신총회 성경연구원 주최(장소 송도제일교회당)
일시 : 10월 7일(월) 10:30~15시(점심식사제공)
강사 : 박동길박사, 김원박사(갈라디아서 이해)
8. 담임목사동정 / 1) 노회임원회-8일 오전7:30(샘터교회당)
2) 장로회연합회 총회인도-8일 오후7시(동래교회당)
9.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도)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저녁	20: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금요독서회	20:00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10월	11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김낙형	박지영
안 내	최예지	김민혁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구제	신정민선교사(선교사역준비)
	국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최승락원장)

교회봉사자

- 담임목사 / 최성림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강도사 / 양주동
- 반 주 / 문경실 김신혜

주후 2024.10.06.(제28-40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시128:1-2(교송)

인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회 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축복의인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7장(5a-5b)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신5장(전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제 9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시편24편(3-5)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시30:8-10, 빌1:19-21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가314장

설교 ↓ 설교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27장(1,5)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53장(1a-2b)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양주동 목사
			설교	양주동 목사
	교회소식			
	개회			
	* 예배예로의부름 ↑ 시99:1,3(교송)			
	인도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회 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 축복의인사 ↓ 벤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시편50편(4-5)			
	신앙고백			
	* 신앙고백 ↓ 사도신경(고신총회)			
	* 감사찬송 ↑ 찬송24장(3a-3b)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롬 4:11, 골2:11-12			
	교리문답교독 ↓ 하이델베르그66-68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44장(1a-1b)			
	설교 ↓ 설교자			
성례는 보이는 말씀				
아멘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 구제헌금 분병 분잔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44장(2a-2b)				
폐회				
* 강복선언 ↓ 주기도문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에스라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수요기도회				
수요일 20시(예배당)				
[말씀·고백·삶]				
인도 : 최성림 목사				
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부(목, 10:30)				
* 울산(화, 19:30)				
인도 : 양주동 강도사				
* 김해(월, 20시)				
* 특별(시간지역협의)				
이야기성경				
구	70.멋진 발을 갖고 싶은 아합왕			
	71.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신	45.성전 문 옆의 앉은뱅이			
주간성경읽기				
주일	사47-49	히 12		
월	사50-52	히 13		
화	사53-55	약 1		
수	사56-58	약 2		
목	사59-61	약 3		
금	사62-64	약 4		
토	사65-66	약 5		

주일설교를 기억하며(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1. 성도들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모든 언행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2.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3.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주의 뜻과 우리의 원함이 같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살게

파서교회(강인중 목사)

1. 예배와 주중 말씀사역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안정적인 예배를 위해 교회가 함께 회집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3. 필요한 재정이 이웃교회를 통해서 적절히 채워져서 공교회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개혁정론(고신개혁언론)

1. 개혁정론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기도록
2.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위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언론이 되도록
3. 고신교회가 역사적 개혁주의전통을 회복하도록 개혁신학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잘 제공하도록

고신교회와 부산중부노회를 위하여

1. 우리교회가 속한 고신교회와 부산중부노회의 정치에 허탄한 세상의 원리가 자리잡지 않도록
2. 부산중부노회와 동래시찰에 속한 교회들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가게
3. 교회의 지도자들(목사 장로)이 참된 말씀과 바른 신앙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설교와 ‘축원’(故 허순길목사, 기독교보 기고글)

세상에서와 같이 기독교세계에도 시대마다 나타나는 풍조가 있다. 이런 풍조는 그 시대를 휩쓰는 세속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고, 교계에서 일어난 주목을 끄는 운동의 영향일 수도 있다. 이런 시대의 풍조를 ‘시류’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류를 쉽게 수용하고 따라가기 마련이다. 시류를 부정할 때 그 시대에 뒤떨어져 사는 사람으로 치부를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교회는 시류에 대해 수용할 수 있고 없는 것을 판단하는 표준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가진 신학과 신앙고백(교리)이다. 교회는 이에 따라 시류를 분별하며 살아야야 한다. 그럴 때 살아있는 교회로서 변함없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초부터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 가운데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축원합니다”라는 말이 차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당시 사회의 “잘 살아보세”의 사회적 기류를 타고, 교계에 기복적 신앙을 강조하는 목사들의 설교에 자리를 잡게 되고 한 시류를 이루게 됐다. 이 말의 근원지는 요한3서 2절에 호소하여 “믿는 자는 일이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으며, 영혼이 잘 된다”는 소위 3박자 축복설교를 함으로 대교회를 이룬 오순절 계통의 목사였다. 이 말이 기복, 신유를 강조함으로 대교회를 이루어 성공한 목사의 특유한 표현이었기에 차츰 교파에 구별없이 한국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에 즐겨 쓰는 기복언어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같은 설교에 수없이 “축원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고신교회는 이 말의 사용에 대한 적부 이론이 있어 1997년 총회에서 “설교에서 축원합니다를 남용치 말 것”이라는 신학부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축원한다”는 말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말이 아니지만 설교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남용치 않도록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이 말을 계속 설교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이제 이것을 크게 권장하는 분들도 있게 됐다.

‘축원’이란 말은 한글사전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자기의 뜻을 아뢰고 그것을 성취시켜주기를 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말이 설교의 성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설교는 하나님께 자기 뜻을 아뢰는 기도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설교할 때 목사는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축원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는 복음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는 사죄와 구원이 있고,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정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선포하는 것이다(요3:18, 막16:15,16). 곧,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자와 봉사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의 본질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 설교에 “축원합니다”라는 말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 기원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을 교인들은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는 설교 시 회중을 위해 축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약속과 경고를 신실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라는 “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가 언약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표를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맞다는 것이 “인”쳐졌습니다. 하나님의 확인 도장을 받은 겁니다.

표와 인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약속의 복음을 귀로 들은 것만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표와 인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2. 눈에 보이는 말씀

성례를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 세계와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욥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고백했습니다(욥 42:5). 눈으로 볼 때에 더욱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례가 눈에 보이는 말씀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례가 말씀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마카톨릭교회는 말씀과 무관한 성례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 없이도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다는거죠. 하지만 이런건 인간적이고 미신적입니다. 은혜 받는 성례는 오직 말씀에 기초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서 직접 제정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례를 행해야 합니다.

3. 할례에서 세례로, 유월절에서 성만찬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할례는 할례자의 피를 흘리고, 유월절은 어린양의 피를 흘립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속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 흘리는 성례는 없고,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성례는 있습니다. 할례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례였다면, 세례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할례 대신 세례를, 유월절 대신 성만찬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속을 찬송합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례라는 굉장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례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0월 6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314장	
성경봉독	빌1:19-21,시30:8-10	
설 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1.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자신의 생명이며, 그분이 자기 삶의 목적이고, 유일한 삶의 의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복음을 인하여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그의 삶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드러냅니다.(12-20)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당한 일이 복음전파에 진전이 될 것을’ 확신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막히기는커녕 도리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보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교인들에게 회상시키며 지금도 자신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의 진전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12)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위대 안에 그가 갇혀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13) 바울이 시위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 중에 담대한 사람 몇몇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14-17) 그는 ‘나는 비록 갇혔지만 갇힌 나를 인하여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며,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자신에게는 가시가 되고, 엉덩퀴가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며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곧 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오직 한가지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19-20) 바울은 자신이 재판석에 서게 될 때에 그때도 전과 같이 담대하게 재판관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즉 그는 이 재판을 통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그의 유일한 관심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었

습니다. 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므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그 어떤 결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이 바울의 신앙고백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에 전심과 전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2.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는 것도 유익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더 좋다’는 “내게 더 이상 좋은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의 온 관심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지만, 그분을 늘 가까이 경험하고 싶지만 하늘에 계신 그분을 지금은 그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속히 볼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인하여 바울이 죽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울 앞에 놓여진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관문이기에 그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니 죽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즉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곧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이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은 무덤에 내려가기 전,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뿐입니다.(시30:9)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 따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로 어떤 환난과 고통가운데 이끄시더라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기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담대히 사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자리이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가장 확실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주와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께서 맡겨두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는 것은 교회를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직무를 온전히 다 감당할 때 주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며 삶의 목표입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4년10월6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227장
성경봉독	골 2:11-12
설 교	성례는 보이는 말씀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66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1. 표와 인

“표”는 무언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흔적입니다. 안내판, 신호등은 무언가를 알려주는 표가 됩니다. 이 표는 장소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표를 보고서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에서 인장반지가 나옵니다. 인장반지를 찍어서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왕의 인장이 찍혀있으면, 그것으로 왕이 내린 명령인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인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롬 4:11).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때는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